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73호
2023.09.14.(목)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G20】 G20 정상회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네덜란드】 네덜란드 ASML, '23년 말까지 일부 노광장비 對中 수출 허가 얻어

【중국】 중국, 55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금 조성

【미국】 美 하원,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한 中 SMIC 제재 위반 조사 촉구

주요 산업별 이슈

【에너지】 세계 최대 LNG 수출국 호주서 파업...천연가스 가격상승 우려

【전기차】 日, '30년 EV 충전기 설치 목표를 2배로 확대 예정

주간 이슈 포커스

【중국, 화학】 中, 비료용 요소 수출 불안정...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 · 생산 차질없어

원자재 뉴스 PLUS

【9.1주 원자재 동향】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제한 추진



공급망 더 알아보기

딜로이트 안진,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법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3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포럼 안내

무역협회,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G20

G20 정상회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  9.9일~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9.9일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 합의 발표 및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 추진 양해각서 체결
 -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는 러-우 전쟁 등 전쟁 관련 표현은 상대적으로 줄고 세계 경제 전망과 기후변화 등 여러 다른 사안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아프리카연합(AU)의 G20 합류가 결정됨
 -  같은 날, 美 백악관은 “미국 주도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회랑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건설되는 철도를 따라 전기·디지털 케이블, 수소 파이프 등을 부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 * 미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프랑스·독일·이탈리아·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인도-중동-유럽의 철도·항공 등 인프라를 연결하여 무역과 에너지·식량 안보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인도-페르시아만을 잇는 동 회랑과 페르시아만-유럽을 잇는 북 회랑으로 구성
-  9.1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양국 간 K-9 자주포 2차 사업 협력, IT·전자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확대 등 국방·방산, 우주, IT·전자,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및 수입 조치 제한 완화에 대한 모리 총리의 각별한 관심 요청

출처: 연합뉴스('23.09.09),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23.09.10)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네덜란드

네덜란드 ASML, '23년 말까지 일부 노광장비 對中 수출 허가 얻어

-  네덜란드 정부가 9.1일(현지시간)부터 반도체 생산장비의 對中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23년 말까지 일부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 네덜란드 정부는 '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23.9.1일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심자외선 노광장비(DUV) 노광장비 등 일부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31일(현지시간) ASML은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국 정부로부터 연말까지 중국 고객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일부 첨단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고 밝힘
 -  다만, ASML은 '24.1.1일부터 자사 최신 심자외선 노광장비인 트윈스캔 NXT:2000i 모델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할 전망
 -  ASML은 '23년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로 단·장기 매출 전망 변화 없이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

출처: KBA Europe('23.09.01), 연합뉴스('23.09.0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중국

중국, 55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금 조성

- 9.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천억 위안(약 55조 원)* 규모의 국가 자원 투자 기금인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도

* 중국 국영 반도체 펀드(빅펀드) 규모: '14년 1,387억 위안(약 25조원) → '19년 2천억 위안(약 36.5조 원) → '23년 3천억 위안(약 55조 원)

- 중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기금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위안(약 10조 9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될 것으로 예상
- 해당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로써 과거 반도체 산업 기업을 관리했던 화신투자관리(SINO-IC Capital), 중국우주과학공업그룹의 투자 자회사인 중국항공우주투자가 거론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장비 기업의 對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은 8.29일 화웨이가 출시한 '화웨이 Mate 60 Pro'에 자국 반도체 기업 SMIC가 생산한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탑재하는 등 미국의 對中 첨단 반도체 규제에 맞서 반도체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

출처: 연합뉴스('23.09.05), 조선일보('23.09.0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중국

美 하원,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한 中 SMIC 제재 위반 조사 촉구

- 9.6일(현지시간) 美 하원은 中 반도체 제조사 SMIC가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中 화웨이와 SMIC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
- 中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화웨이 Mate 60 Pro' 스마트폰에 中 반도체 기업 SMIC의 7nm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美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원장은 SMIC의 美 수출통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
- 같은 날 美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대중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하도록 상무부에 요구
- 美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의 7nm 반도체 사용의 성격, 구성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히며, 수출통제 외 여타 조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함
- 美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中 화웨이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SCMP에 따르면 화웨이는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된 프로세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반도체 구입 경로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고 보도

출처: 블룸버그('23.09.06), 연합뉴스('23.09.07)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에너지

세계 최대 LNG 수출국 호주서 파업...천연가스 가격상승 우려

- ▶ 주요 외신에 따르면, 9.8일(현지시간) 오후부터 美 석유 대기업 셰브론이 서호주에서 운영하는 휘트스톤과 고르곤 가스전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보도
- ▶ 호주의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이 파업에 돌입한 배경은 노사가 임금·고용안정·초과근무와 셰브론 사업장 간 인사 이동 관련 규정 등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임
- * 호주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파업에 들어간 휘트스톤과 고르곤 가스전은 전세계 LNG 공급량의 5~7%를 차지함
- ▶ 부분파업은 9.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노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뒤이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
- ▶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호주산 LNG의 주요 구매자인 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시아·유럽의 가스 소비량이 미미해 이번 파업이 LNG 출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이 시작되면서 LNG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북반구 겨울철 성수기 우려를 낳으며 가격 상승 견인
- ▶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셰브론의 실질적인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 실질적인 생산 차질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23.09.08), KBS('23.09.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전기차

日, '30년 EV 충전기 설치 목표를 2배로 확대 예정

- ▶ 8.29일(현지시간)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日 경산성은 '30년 EV 충전기 설치 목표를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
- ▶ 日 경산성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약 3만 대의 EV 충전기를 '30년까지 총 30만 대(상업시설 27만 대, 고속도로 3만 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일본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만 허용할 예정
- ▶ 또한, 日 경산성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급속충전기 출력기준을 상향하고, 새로운 충전방식 도입을 촉진할 예정
- ▶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 '30년까지 현재 급속충전기 평균 출력인 40kW에서 80kW까지 출력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며, 자동차를 충전기에 연결 시 인증·충전·결제에 되는 '플러그 앤 차지'와 같은 새로운 충전방식 도입을 촉진할 예정

출처: 일본경제신문('23.08.29)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중국, 화학

中 비료용 요소 수급 불안정... 국내 차량용 요소수는 수급 · 생산 차질 없어

- 9.7일 블룸버그 및 국내 매체에서 “中 정부가 최근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中 요소 수출 중단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 현재 상황에서 자칫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산업용(제조용·차량용) 요소수’가 아닌 ‘농업(비료)용 요소수’임
 - * '23.1~7월 요소 對中 의존도: (제조용·차량용) 90.2%, (농업용) 17.4%
- 정부가 복수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최근 중국은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물량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 차원의 요소 수출 중단 지시는 없음을 확인
 - 중국은 통상적으로 겨울 밀농사로 인해 가을에 요소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인도에서 대규모로 중국 요소를 수입함에 따라 中 자국 내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내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연쇄 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中 국영기업인 ‘중농그룹’과 ‘중해석유화학’은 9.2일과 9.4일 각각 중국 내 요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을 파종을 앞두고 자국 내 공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해외 요소 수출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의서를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농업(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 '23.7월 농업(비료)용 요소 수입 비중: (카타르) 41.1% (중국) 17.4%, (베트남) 13.4%, (사우디) 10.0%
- '21년 요소수 대란을 유발한 차량용 요소에 대해 환경부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 9.11일 환경부는 이날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요소수 재고를 공개한 3,103개 주유소 가운데 97%(3,014개)에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

출처: 블룸버그('23.09.07), 경향신문('23.09.08), 중앙일보('23.09.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요소 수입 관련 비즈니스 애로상담 전용창구 운영

산업부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와 KOTRA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요소 수입 관련 비즈니스 애로상담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우리 기업의 요소 수입 관련 애로와 요청사항을 접수·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 통관, 조달 등 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670-7272 / (KOTRA) (국번없이) 1600-7119 ▶ #5번 전용창구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간 광물가격 동향('23.09.11) 등

희토류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제한 추진

9.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희토류 원료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출처: 로이터통신(9.11), 연합뉴스(9.11)]

»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주요 희토류 생산국 중 하나로, 中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확인. 다만, 수출 금지 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음.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9월 1주)

◆ [비철금속] 中 수요 및 美 연준 긴축 우려에 동 가격 하락, 니켈은 소폭 상승세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	'23.8월	전년비(%)	8.5주	9.1주	전주비(%)
동	8,797	8,628	△1.9%	8,411	8,340	△0.8%
니켈	25,605	23,352	△8.8%	20,323	20,387	0.3%
아연	3,478	2,726	△21.6%	2,429	2,436	0.3%

* 자료원: LME

☞ (동)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로 위험자산 투자가 기피되는 가운데, 中 동 수입지표 부진 여파로 동 가격 하방압력 발생

» 페루 동 광산 증산 및 LME 거래소의 재고량 증가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니켈) 中 전기차 판매의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 생산국인 인니의 니켈원광 생산쿼터 발급 중단으로 공급차질 우려에 따른 상승세

» 인니 정부의 자국 내 불법 채굴행위 조사로 고위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는 등 니켈 생산쿼터 발급이 중단되면서 니켈 제련소들이 원광조달에 차질을 겪으며 공급차질 우려 심화

◆ [철강] 건설부문 계절적 성수기 진입 및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원 가격 상승세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	'23.8월	전년비(%)	8.5주	9.1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89.19	△45.7%	159.74	161.80	1.3%
원료탄	364.99	281.12	△23.0%	267.25	271.30	1.5%
철광석	120.26	116.19	△3.4%	115.72	118.44	2.4%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건설부문 성수기 진입으로 中 제강사들이 고로가동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中 주요항구의 철광석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철광석 가격상승세 시현

»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美·EU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요둔화 우려로 상기 가격상승 압력 부분 상쇄

☞ (연료탄) 9.1주차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87.15달러로 전주대비 2.3% 상승,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료탄 등 에너지원 가격상승세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9월 1주)

◆ [희소금속] 中 저조한 해외 수요 상황으로 하락세 지속,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가격 상승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	'23.8월	전년비(%)	8.5주	9.1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314	△15.3	1,185	1,175	△0.8
탄산리튬	72,290	43,426	△39.9	28,112	27,543	△2.0
수산화리튬	67,180	44,790	△33.3	25,012	24,116	△3.6
코발트	31.20	18.07	△42.1	18.20	17.58	△3.4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12,623	△17.8	342,900	354,300	3.3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2,269	△38.4	70,600	72,700	3.0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낮은 현물 거래상황 지속, 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가 하락

» 주요 공급업체들은 높은 광석 원료가격으로 오퍼가를 유지한 반면, 유통업체는 향후 가격 향방을 주시하며 시장 관망

📍 (탄산리튬) 호주 주요 생산업체의 스포듀민 생산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가나 등 신규 광산 개발 및 증설 계획으로 스포듀민 가격 하락세

» 탄산리튬 수요 업체는 최소분량 및 관망세를 이어간 반면, 다수 생산업체는 판매 이윤 축소 및 생산가 이하 판매도 속출

📍 (코발트) 中 코발트 금속가는 9월 초 3개월 중 최저가를 기록하며 저점에 도달했다는 시장 인식에 따라 내수 및 해외 수요 증가로 가격 반등

📍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의 원료 재고 구매 및 제한된 현물 공급량으로 산화네오디뮴 등 가격 상승, 세륨·란탄은 수요 분야인 연마제, 촉매 산업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 [에너지] 사우디·러시아 원유 공급 감축 정책 연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국제 유가 동향〉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	'23.8월	등락폭	8.5주	9.1주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0.19	-16.22	86.67	90.36	3.69
브렌트유	99.04	80.73	-18.31	86.24	90.04	3.81
WTI	94.33	75.88	-18.45	82.41	87.15	4.73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Korea PDS 등

📍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공급 감축 정책을 연장했으며, 美 허리케인에 따른 멕시코만 석유생산 차질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가봉의 쿠데타로 인한 정치 불안 등도 국제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공급망 더 알아보기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법



[작성] Deloitte A&A본부 ESG그룹 연경흠 상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과 위험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자체 공급망 전략을 재평가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험에 대한 4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공급망 이슈

- ▶ 최근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나타난 극도로 분업화된 공급망 관리체계가 큰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COVID-19 팬데믹) COVID-19 발생 후 지난 2~3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국경봉쇄 (Shutdown)로 인해 원재료 및 중간재의 수급 불안, 물류 중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비상상황 대응 및 리스크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
 - (지정학적 이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간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원자재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긴장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ESG 이슈) 기후변화, 인권 이슈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EU 공급망실사법(CSDD)·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발효 또는 예정으로, 기업들은 더 높은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급망 전략을 재조정해야 함
- ▶ 이러한 이슈들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을 높이고, 기업들은 민첩성을 갖추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이는 공급망의 다변화·디지털 기술의 활용·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용어 정의

- ▶ EU 공급망 실사법(CSDD): EU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 역외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초과 및 전세계 매출 1.5억 유로 초과 모기업 또는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EU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초과 시 규제대상에 해당됨
- ▶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 기존 EU의 비재무보고지침(NFRD)이 개정되어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발표됨. 해당 지침에는 환경, 사회, 인권, 부정부패, 뇌물수수, 다양성, 비즈니스 전략 및 리스크 등 경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내부/외부적 관점을 모두 고려한 “이중중대성” 평가 및 보고와 제3자의 제한적 인증에서 합리적 인증으로 단계적 검증방식 강화를 도모하는 점이 특징임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6.1.1일부터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대해 EU 물품별 탄소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EU배출권거래제(EU-ETS)와 연계하여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징수하는 제도

공급망 위험에 대한 4가지 대응방안

- ▶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다각화됨에 따라 기업이 현실적인 도전과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딜로이트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험관리 방안으로 다음 4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함
- ▶ **첫째, 거래 중단에 대한 예측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공급망에서의 거래 중단은 생산 중단, 재고 부족 및 고객 서비스 문제로 이어지며, 기업은 **예측 모델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거래 중단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예를 들어 대안 공급처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위기 관리팀을 구성하여 빠른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함
- COVID-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여 공급망 내 거래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상황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갑작스런 거래중단 대응을 위해서는 **거래 중단에 대한 예측을 하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들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 시즌에 재고 부족 현상을 겪음. 이후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 루트를 확보하는 등 대체 소싱 전략 개발에 중점

이슈 사항	주요 대응 마련
대체 가능한 거래협력사 확보	기존 비용 관점으로 저비용 국가에서 직접 조달했던 반제품에 대해 근거리 내 대체 가능한 거래 협력사 확보를 통해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거래 중단에 따른 영향에 대한 수치화	과거 추세를 분석하는 동시에 재고 및 수요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접근을 위해 디지털 Tool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체계적인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 **둘째, 원자재 가격 및 원가 인플레이션 관리**: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또는 원가 인플레이션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은 **원자재 공급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고려하고,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기회를 식별해야 함**. 이를 위해 **전략적 입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재고 관리 및 생산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원자재 가격변동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우크라이나의 밀은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기업들은 주요하게 구매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다양한 건설 회사들은 약정 위반과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는 높은 가격에 조달된 자재 및 과잉재고로 인해 발생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기업들은 해외 운송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자 S&OP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자재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이슈 사항	주요 대응 마련
원자재 가격의 제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상세한 원가 계산을 통해 인플레이션 및 변동성 이슈에 덜 노출되는 제품을 분석하여 구매량 증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고객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에 대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여 가격 인상분에 대한 고객사와의 영향 분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원자재 가격 전망을 통한 영향도 예측	제3자 전문가 또는 내부 분석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여 인플레이션의 중기 영향을 미리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식별

- ▶ 셋째, 주요 공급망에 대한 집중 관리: 핵심 공급망 파트너에 대한 깊은 관리와 협력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기업은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주요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를 식별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험관리 및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산업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관리해야 할 글로벌 공급망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됨. 이에 공급망 내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거래협력사를 파악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팬데믹 이후 자동차 OEM사들은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서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겪고 있음. 이에 OEM사들은 기존 거래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외 계약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이슈 사항	주요 대응 마련
주요 거래협력사의 생산 Capa 증설 가능성 확인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약 대비 많은 양의 원자재 또는 부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 협력사의 증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Tier 1 및 Tier 2 공급업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필요시 거래 가능성 마련
거래협력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적절한 보상을 통해 거래 협력사가 역량을 개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역량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상생 전략 필요
새로운 거래 협력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잠재적 공급업체 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급업체 고려를 통해 위기 상황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 필요

- ▶ **넷째, 인력 부족 이슈에 대한 대비:** 노동력 부족은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기업은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재 유치와 개발에 투자**해야 함. 또한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은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팬데믹 이후 최근 수요 회복으로 인해 인력 문제를 겪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음. COVID-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근로자들의 해외 근무가 제한되면서 인력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됨
- 2020년 중반, 한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는 공급업체 네트워크 내 인력관리 실패가 확인되면서 (판매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50%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음. 이후 많은 소매업체들은 임금 인상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이슈 사항	주요 대응 마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프로세스 수정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 구축
임직원에 대한 교육체계	내부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내 적절한 근로기준 적용	글로벌 공급망 내 근로 표준을 제시하고, 최저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안전 등 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와 거래 중단 검토

중견/중소기업의 공급망 운영 제언

- ▶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을 낮추고,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 ▶ 제시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 방안인 **거래 중단 예측 및 선제적 대응, 원자재 가격 및 원가 인플레이션 관리, 주요 공급망 관리, 그리고 인력 부족 대비**를 통해 수출 기업의 공급망 위험 관리를 보다 선제적이고 민첩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할 수 있음
- ▶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어 **탄소중립, 공급망 실사법(CSDD), 근로자 인권** 등에 대한 주요 주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탄소중립과 Scope3 관리 확대** :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scope3까지 확장하여 공급망 내 탄소를 관리하며, 이로써 글로벌 협력사에 대한 탄소 관리가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하여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탄소비용을 전가할 계획이며, 향후 산업별로 확대될 예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는 탄소 영향을 고려한 구조로 변화될 예정
- **근로자 인권 이슈** : 근로자 인권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ESG 이슈로, 미국의 경우 인권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몇몇 자동차 기업은 강제 노동과 연루된 제품을 구매한 이유로 미국 의회에 소환되는 등 근로자 인권 문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공급망 소식통

2023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포럼 안내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023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in Korea」 포럼을 개최합니다.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포럼에서는 ① 국내-해외정부 온실가스 감축 사례·니즈 교류 ② '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 설명회 ③ 해외정부-기업과의 네트워킹 오·만찬이 세션별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in Korea 포럼 행사 개요

- » 행사명 : 2023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in Korea 포럼
- » 일자 : '23.11.9(목) 11:00~17:30
- » 장소 : 파크하얏트 부산 그랜드볼룸(2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51
- » 분야 : 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기후변화 대응 우수 사례 등
- » 대상 :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등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 50개사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1부 <국내 산업·에너지 감축정책 및 대응사례>	
10:00-10:20 ('20)	개회사·환영사·축사 및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협력 선언
10:20-10:40 ('20)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대응체계
10:40-11:10 ('30)	한국 정부 차원 정책·사례 (국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 및 전략 (지자체) 부산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사례
11:10-11:30 ('20)	한국 기업 산업·에너지 분야 감축추진 사례
2부 <해외 산업·에너지 부문 감축 수요>	
13:30-13:50 ('20)	파리협정 체제의 국제감축 트렌드
13:50-14:40 ('50)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투자 추진방향
15:10-16:00 ('50)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유치국 투자수요
16:40-17:30 ('50)	'24년 산업·에너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향

포럼 신청 개요

- » 신청 기간 : '23.9.4(월) ~ 9.20(수)
- » 참가 비용 : 1인당 10만원(상담회 지원, 오찬(2회) 및 만찬(1회) 제공, KOTRA 탄소중립 지원센터 통한 현지 사업 F/U)
- » 신청 방법 :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여 접속 후, 하단의 '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 관련 문의 :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itmo@kotra.or.kr / 02-3460-3252)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작성]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

개요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14:00 – 16:00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소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14:00-14:10	개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14:10-14:35	(주제 1)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발표: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토론: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14:35~15:00	(주제 2) 기술보호와 통상	
	발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15:00~15:25	(주제 3) 기술표준 및 규범과 통상	
	발표: 이희진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한국무역협회	
15:25~15:45	Q&A	
15:45~15:5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jh.han@kit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3.09.12.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8말	9/8	9/11	9/12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321.80	1,333.40	1,331.10	1,327.80	△0.25%	5.01%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320.80	1,331.20	1,329.60	1,325.00	△0.35%	4.72%
₩/CNY	186.51	181.44	181.46	182.02	182.56	182.20	△0.20%	0.42%
₩/¥100	1,032.48	945.56	905.53	906.09	910.84	904.06	△0.74%	△4.39%
Y/US\$	115.14	133.73	145.97	147.16	146.14	146.87	0.50%	9.83%
US\$/EUR	1.1318	1.0617	1.0911	1.0719	1.0724	1.0736	0.11%	1.12%
CNY/US\$	6.3681	6.9630	7.2891	7.3447	7.2900	7.2928	0.04%	4.74%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299.0 (₩/¥100) 946.8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9.11(전일)	'23.9.12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91.59	92.34	0.8	20.5	13.6
						0.8%	28.6%	17.2%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0.65	122.60	1.9	43.1	5.3
						1.6%	54.2%	4.5%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332.50	8,337.50	5.0	1337.5	△49.5
						0.1%	19.1%	△0.6%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54.00	2,153.00	△1.0	73.0	△207.5
						△0.0%	3.5%	△8.8%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0,050.00	19,830.00	△220.0	730.0	△10595.0
						△1.1%	3.8%	△34.8%

반도체

	'21	'22	'23.6월	'23.7월	'23.8월	9/7	9/8	9/11	9월(~1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51	1.49	1.46	1.45	1.45	1.45	1.45
(%, YoY)	29.9%	△23.0%	△55.2%	△52.1%	△47.2%	△42.1%	△42.1%	△42.0%	△42.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3	6.31	6.32	6.30	6.30	6.30	6.30
(%, YoY)	14.7%	10.7%	△20.9%	△7.7%	△3.8%	△4.1%	△4.1%	△4.1%	△4.1%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8.18	8.25	9.1	9.8	전주비(8.25)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1031	1013.78	1033.67	999.25	△3.3%	△9.8%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9.6	9.7	9.8	9.11	9.12	전일비(8.25)	'22년말비
BDI	2217	1515	1081	1141	1186	1209	1235	2.2%	△18.5%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협력기관

